

이제는 서리라 통일의 길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과 반공정신을 확립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 도덕교과서 중에서」

해방이후 정부가 우리에게 주입시켜온 통일교육은 단편이 걸쳐 경제·군사적으로 북한을 알렸던 그 수준이 큰 차가 나게되면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체제를 포기하게 되며 통일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 또한 우리는 제도교육에서 북한과 사회주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 보다는 부조전 반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홍반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공의식의 분화기 속에서 학생운동은 물론 노동운동, 그리고 학교교육을 실현하려는 전교조 선진단체에게서 위정충정으로서 돌아와서 국가보안법이란 울가미에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반공의식을 극복하고 이슬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조국통일운동에 있어서 전제이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려는 이번호를 시작으로 6회에 걸쳐 북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기획시리즈를 연

재합니다. 물론 지난 88년, 89년 조국통일운동의 흐름속에서 진행되었던 북한비교연구 운동이 있었으나 그 대상을 표적화하지 않은 원리적이고 이론적인 고찰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론적 영역의 사상, 경제, 경제적 구조보다는 교육, 의식, 의료, 여성, 사회문제 등 북한사회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열두에 두어야 할 몇가지 기본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북한사회를 선입견이나 편견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서로의 체제나 이념을 알리기 이전에 「다름이 살아가야 할 한 가지」라는 민족통일적 화해, 민족대단결의 인정이 요구된다는 점이며 셋째, 북한은 우리와는 다른 사회주의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특수한 조건의 사회주의 사회로서 그 내면에서 보여지는 자본주의적 의식과 기준을 가지고 현실상으로 비교,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난 88년 청년학생운동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통일운동과 89년 문인환희사와 입수경의료의 자주적 교류 성과에 힘입어 90년

대에는 8-15 범민족대회 성사투쟁을 기점으로 통일운동이 주체가 전개되며, 진민중심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시리즈 또한 독자여러분의 올바른 북한관 정립과 아울러 조국을 하나



로 있는 실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자)

1 올바른 북한관 정립을 위하여

일당독재

먼저 민주주의와 독재의 개념을

해적으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모든사람에게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을까요? 당시 아테네는 시민 계급과 노예계급이 존재했고 시민 계급은 민주주의가 구현되었지만 노예는 집승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테네 시민계급의 민주주의는 노예계급에 대한 독재적 기반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원 역시도 「인민(demos)의 지배(kratos)」라는 의미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란 한계내에서만 실현되는 것이지만 계급과 계급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주의 사회의 민주주의와 독재는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회주의 사회에서 파도기까지는 완전한 무계급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어 전사회의 노동계급화가 상향정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처럼 여러 계급-계급의 다양한 양이 존재하지 보다는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한 노동계급당과 이미 해체된

지구-자본가-중소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중소장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주의는 계급적 이해관계가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형성됨으로 구별의 지구-자본가 계급에게는 철저한 독재적 노동계급을 가능케 하는 것 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당독재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고 여기서 독재란 앞서 언급한(반)과 같이 지구-자본가에 대한 쫓을 말합니다. (참고:연세88호)

우상숭배

우리는 북한이 40여년간 김일성 우상숭배를 해온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그는 항일투쟁시절에서 일제를 물리친 영웅이기 해방직후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공격해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1946년에는 무장투쟁 무장분파에 토지개혁을 실시한 탁월한 지도자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일찍이 소수였던 공당과 기업을 국유화시키고 8시간 노동제, 화품, 남부평등을 실현한 인물로,

- ### 글 쓰는 차례
1. 북한의 왜곡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남북한 교육제도 비교 고찰
 3. 북한의 의·식·주 생활
 4.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5. 북한의 사회문제와 그 해법
- (본문 북한의 기본노선과 남북한 사회주의비교고찰)

승배는 우리가 따른 견해차를 가지고 있지만, 그를 나름대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는 있을 것입니다.

세습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후계자로 대를 잇는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메시지 중요한 변화의 과정에서 김정일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선

역사의 길

1 대/학/로/

「통일연원 46년」이 이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80년대 이후 권위·양적인 발전을 가져온 민주운동의 커다란 목표중의 하나가 바로 통일운동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보려는 대/학/로/ 문제 4기러-한대진입로-통일로의 순으로 청년학생과 시민의 운동역량이 결집되었던 「거리」를 중심으로 당시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 통일운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

전통문화를 주장하는 등 반민족적 행위들을 지행하였다. 이러한 반민족적 독재정권은 4·19로 종식되었다. 뒤이은 강령정권은 민족의 힘에 눌려 나락지까지 저지 통일정부를 표방하였으나 이적 역시 지식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60년 11월1일에는 서울대민족통일연맹(이하 민통)이 반공주의 학생 운동역량을 집결하였고, 통일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민통」의 발족장소가 오늘날 대학교로 불리워지는 바로 그곳이다. 「민통」에 뒤이어 여러학교에서도 학보들 통해 당시로서는 놀랄만 다양한 요구, 이틀테민국보, 반공주의 수정론이 꽃을피우기 시작했다.

61년 5월4일 「민통」에서 학생-체육대회 등을 겸자한 남북화해회담을 제안하였고 5일에는 외대를 비롯한 전국 17개대학대표자회의 모인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결성 준비대회」의 합의사항으로 남북회담을 5월중에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통일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통일여건의 발전태가 파격적이었던 것만큼 그 오류도 컸다. 「기아」 북한학생과 만나서 민족의 노래, 도라지의 이리 땅을 부르며 통일운동을 마련하겠다는 당시의 결의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실천방도를 제시하지 못한채 이상적-관념적 차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류와 한계상을 내재한 초보적 수준의 남북회담이었지만 자체가 갖는 역사적 의의성은 상당한 것이었다. 그러했기

기타고서 들려오는 이거러 한가운데 있는 공원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동서로 서있는 좌백물건물사이에서 「비망록」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 연구공간을 소망하는 현수막과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다. 공인 알지에는 현대조각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서 잠시 걸가면 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곳은 이른바 「서울문화의 메카」라고 불리워지는 한 박물관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민족과 조국의 하나됨을 위한 몸부림과 항쟁들이 끊임없이 일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학교로 애국시인 학생들의 투쟁의 장소로 일어서게 된 때는 1960년 4·19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미국의 치밀한 전야래 친일미국노와 민족반역자를 등에 업고 비정통정정부로 출범한 이승만정권은 자신의 세력안정을 위해 민족의 내적인 북한을 동포들을 꼭으로 규정하여 대결의식을 조장하고 적

에 이를 지지하기 위한 편입이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5·16군사쿠데타로 완전히 무산되었던 것이다. 외월로 이루어진 4·19를 뒤집고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인들은 통일정권의 발미로 「선진실-후통일」을 내놓았고 반공, 반민족 이데올로기를 더욱 악랄히 주입시켰다.

전국에는 6·70년대를 넘어오는 동안에 민중들은 어둠속에서 깨어있기 위한 민주와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고, 일련의 투쟁들을 통하여 80년대에 외치는 민중성이 하나되는 것, 바로 「통일」로 통치되고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찾아와야만 한다고 자각하게 이르렀다.

85년 3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은 「남북교류는 6천만민중을 배제한 채 정권담당자에게 의해 비밀리에 추진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통일의 주제를 6천만민중으로 명확히 선언하였다. 빛나는 87년 6·10투쟁을 기점으로 다시 독재정권은 전사리를 맞았고 「조국통일」은 민족의 숙성된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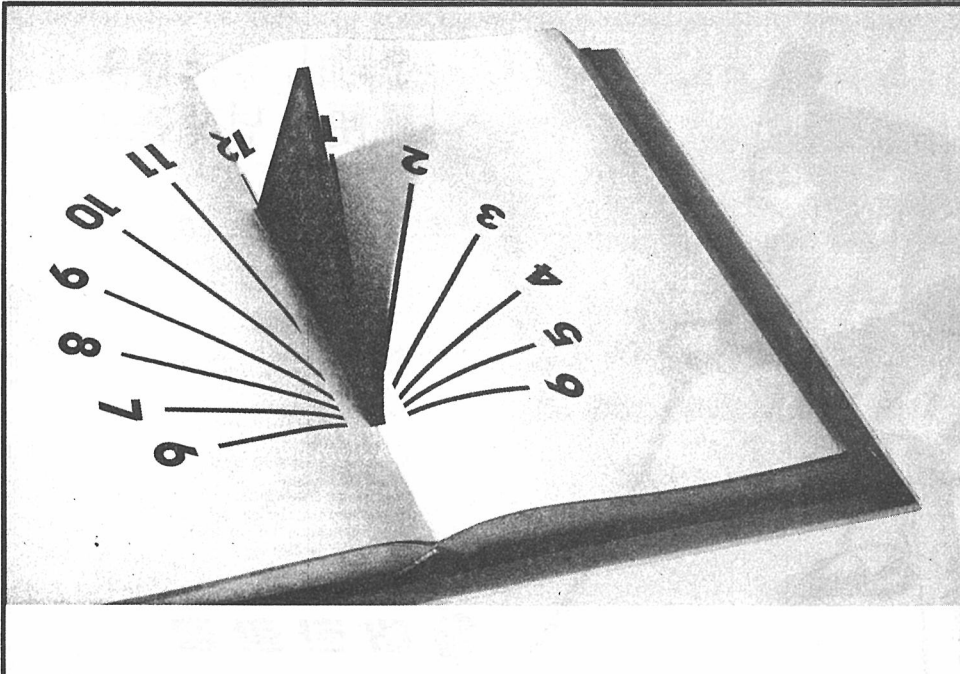
식에서 민족적 숙성사업으로 부상하였다.

87년 10월부터 89년 4월까지 이쪽 대학에서는 60여차례에 달하는 통일운동 관련집회들이 열렸고, 최근에는 「범민족대회」의 평화적 구축을 위한 국민연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당국은 이러한 것들 시위-집회를 핑계로 89년 9월부터 대대적으로 패쇄하려 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창경로로 확장공사가 끝나는 내일 6월 다시 치적이 부재된 태도로 되찾게 하였다.

이러한 소강상태를 맞이하는 동안 대학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형선과 의세중추적 순회하는 폭은 활을 벗어 버리고 이방의 끝은 이들이 자유롭게 모이도록 조국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결연히 밀쳐야할 수 있는 폐기되는 거리로 자리매김 될 때, 대학로는 제 위상을 확고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현수 기자)

청년학생과 시민의 함께 통일의 의지 품어야 할 곳



책속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지를 켜는 知性 -
시선을 거두어 다시금 켜 가운데 모은다.
그 얼마나 뜨거웠던 여름인가?
마음을 가리내놓고 조종의 책을 펴낸다.
하나하나의 활자가 새롭게 느껴진다.
속 - 단숨에 한여지를 열어 내리간다.
스무 - 책장남기는 소리는 한여름의 파도소리보다 더 시원하다.
장막처럼 뜨거웠던 태도로 씌어는 지금,
마음은 방구의 열기로 새롭게 타오르기 시작한다.

이제 책속에 마음을 쏟아주세요.
아마 멋진 2학기, 나의 知性이 온몸으로 살려내는 보람있는 한학기가 될거야.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광풍속에서 외길 걷는 학술운동

-범민족대회 학술제를 평가하며-



학술 흐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없이 '행사의 성사'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예초는 북한문학과 남한정부당국이 함께 참여하자는 취지라는 당시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일파의 집회참석으로 끝나고 말았다. '범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린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둘째, 이번 학술제의 내용이 갖는 큰 의의성에 불구하고 그 형식의 미비성으로 인해 대중적 차원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토론 참가자가 거의 기초반 수준으로 끝났으며, 토론에 익숙하지 못한 대중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토론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셋째, 학술제를 '범민족대회'의 출발점으로 정한것은 학술운동의 중요성을 대중적으로 공감할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적 이론이 발전된 실천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말을 생각해보고 이제 남한대 민중민주운동의 통일적 기초는 바로 학술운동이 담보해야 한다는 사상이 확립되고 있다.

내년 90년도 학술운동의 방향이 '통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평화통일 대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차후이전 학술제의 내역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

자주적 연구성과에만 매몰, 메타리치의 성격, 과학학적 중과중의 대항과 유려한 활동방식으로 학술운동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볼때 '범민족대회 학술제'는 기간의 한정성을 일관적으로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한 대회의 성사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회가 갖는 역사적 의의라는 측면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통일의 추진력이 민중대회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남한대 민중-민중 통일세력 및 해외추진본부 추진세력

학술운동의 개별성과 현실에 기초하지 못한 자족적 이론 검증의 한계성을 딛고, 대중과 연대속에 꽃핀 범민 학술제

이 함께 자리하여 통일의 중요성을 공유하였고, 나아가 통일의 창구라는 경유점이야 한다는 방향을 보기에 깨뜨리고, 남북한 7천만 동포가 바로 통일의 주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토론주제의 내용적 의의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의 양면성, 핵사찰 체포로 인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껏 학술운동이 갖추어 온 조건들을 헤쳐나온 선진적 학술운동가들은 그리 흔하지 않았다.

자 전문분야로 나뉘어진 학술단체가 갖는 개별성과 특성성, 현실에 기초하지 못한

을 다루었고, 앞으로의 과제도 통일운동측면에서 제시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룬 학술연구가 '통일'로 자리잡아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학술제가 갖는 의의성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러나 통일의 양면성, 핵사찰 체포로 인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추진세력의 사전 준비 미흡을 들 수 있다. 어느때나 통일과 반통일 세력은 존재했고 관해상 반통일세력이 활동해 강했다. 범민족대회도 마찬가지로서 이 행사가 저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에게 학술운동은 어느정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운동과도 때때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인간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데 상당한다고 할 수 있었다. 바로 모든 운동과 연관관계를 맺으며 이를 계해해 시키고 조야해 해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학술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급변정세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도, 자체의 독자적 이론화로의 축조도 아닌 바로 현실속에서 갖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실천적 장소에서 해답이 구해져 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다지는 것이다.

(황선해 기자)

압 터

■사단청 제12기 정치강좌

사회민주당의 청년연맹(이하 사단청)에서는 오는 9월10일부터 10월19일까지 매주 2회의 (화) 금 오후 7시30분~10시30분) 정치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정치강좌는 민족의 삶과 한반도 주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상의식의 발전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다.

△9월10일-1회차 △9월11일-반중법적유물론1 △9월14일-반중법적유물론2 △9월18일-사회 유희론(박준성:구로역사연구소 연구원) △9월21일-사회 유희론2(박준성)

△9월25일-정치경제학 이해 (배순진: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원)

△9월28일-사회주의 정치경제학(신학:경희대 강사) △10월1일-라이사 혁명사 (박상철:현대사 연구가)

△10월1일-3세대 혁명사 (이병승:아리리연구소 연구원) △10월1일-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최규진:연극사연구소 연구원)

△10월12일-북한현대사(김무용:현대사 연구가)

△10월16일-남한사회의 성격(양재원:한겨레사회연구소 연구원)

△10월19일-민주민주주의와 사회정치 (문희치:사단청사무처:745-7924)

헛 글

■일제하 극동 시베리아의 한인 사회주의자들(마에베이찌도리예비치 김 지음)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사이에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던 72인의 인물사로, 반제국주의적인 러시아의 지원과 연대투쟁에 의하여 조선해방운동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투쟁을 전개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주목할만한 것은 운동 주체의 입장에서 작성된 자료들이 있었다는 점과 소련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기술되었다는 점이다.

(역사비평사 5월 25일판) ■평화교육과 민중교육(김성진 지음)

평화학의 신장과 교육관을 조명할 책으로 평화교육과 민중교육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학술정보

평화교육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치환 특수한 조건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교육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제시하고, 민족문제의 교육을 결부시켜 이해하려 하고 있다.

민중교육론에서는 환경의 교인들이 가져야 할 교육관과 함께 교육이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출판 6월 6일판) ■철학의 근본문제와 실천(시립(이수환·신상식 지음)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계승과

창조를 이룬 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수환과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적극 비판하는 신상식과의 상호 논쟁형식으로 글을 구성하였다.

또한 메테스트로키아의 의의를 범중편의 유희론의 실천적 의미에서 찾음으로써 최근의 동구권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송경 6월 4일판)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소속상자

지난 8월 9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8번째 다자간 협정으로 시작되어, 그 첫번째 각료회의가 우루과이에서 열리기로 하였다.

동남상, 지역소속권, 서비스시장개방 등 15개 분야로 나뉘어져 개방대상, 속도를 둘러싸고 각국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올해말을 시한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협상은 미국의 경제위기타격을 위한 국제무역적세제개혁노력이랄 수 있다.

이 협상은 세계시장의 통일성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농업부문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농촌지원금 축소로 인해 자생적 능력의 후퇴와, 농촌구조 조정으로 농촌, 탈농화되는 농촌해위기의 국면이 벌어질것 될 것이다.

대중속에 거듭나야 할 교지

-90년 여름호 출간 교지를 점검한다.

이 책

대학신문은 크게 방송매체와 필자 매체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방송매체가 전파를 통한 순간적, 일회성 전달이라면 일정한 거리를 매개로 하여 보다 지속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이 필자 매체이다.

필자매체에는 학보와 교지가 있는데, 학보가 상대적으로 신속한 시기성 전달을 요한다면, 교지는 필자매체가 갖는 지속적 속성을 바탕으로 일정한 기간(1학기 또는 1년)을 포괄하여 대중을 조속문화화시킬 정치성으로

이끄는 일에 부수해야 한다.

'80년대 후반에 제기된 '대체학'의 문제는 '인간반대'의 일방적 화살을 바탕으로 그들의 구체적 요구를 수렴하여 해방학을 조지화·의식화 시키는 일이었다. 이때 기본적이며 핵심의 관점은 대부분 공유하였다.

이들 방법론적 문제는 각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이중 방송매체가 전파를 통한 순간적, 일회성 전달이라면 일정한 거리를 매개로 하여 보다 지속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이 필자 매체이다.

'80년대 편아 학생운동사, '편아 13일 역사행진'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통일운동·문화운동을 '학내지주'라는 관점에서 서술해 주었는데, '학우대중'의 참여유도와 학내외자 발골,

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체학'과 '필자매체'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양자화', '상대적 이론'과의 관계 및 의 철학적해석을 서술한것인데, 현실적사건화해는 다소 거리가 있는 원론적인 전달이었다.

'서강'은 '80년대 청년시장 학생운동가', '현국경제학과 한반도문제' 등을 다루면서 학생운동과 통일운동을 하나의 맥락으로 일관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중량있는 내용을 열거할

일반학우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재발굴과 문제정리를 잘 서술하였으나, 비판과 문제제기에 그칠 뿐 그에 대한 교지의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 있다.

'서울'은 통일운동사의 신성한 축격으로 다가간 일수정 전대학대표의 연교이라는 이점을 활용, 통일문제와 사회주의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준 점이 특징이다.

황희영의 '북한문제를 평화로 만든 '사람이 살고 있었네'는 북한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 이수환, 임동선, 윤승오의 '우물쭈물 모음도 현실적이고, 감성적이고, 다가가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변화...는 이미 많은 간지에서 다루어 주었던 여러 사건의 정례'만 그칠 뿐 반성된 근본문제해방과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교지는 매체혁신의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각대학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매체혁신이 '기초' 대중과 유리되어있던 전달과제의 문제정리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매체혁신의 완성도 도달점은 일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각 대학마다 구체적인 실천적 상황에 기초하여 대중의 참여와 공유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김영석 기자)



10입니까? 10입니까?

잠재된 힘은 발휘될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방산의 일과, 1/10-원래의 모습, 뜨거운 열정, 도전과 개척의지, 그리고 끝없는 탐구정신 등 넓이와 깊이를 쟀 수 없는 만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젊은 지성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능력은 적성에 따라 1/10만 발휘되기도 하고, 10/10 모두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념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가-조직의 운영은 합리적이되 그 구성원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가-

일에 대한 보상은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수준인가-더욱 소중한 여가야할 '드러나지 않는 힘'-개개인 모두가 10/1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재육성임을 력기금성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력기금성



전대협의 모범으로 자리매김



다시다녀왔던 1학기를 고향으로 떠나기 전, 80년대 대졸생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맞이하는 2학기... (text continues)

학대되었다고 봅니다. 등록금부담을 시발로 4~19부... (text continues)

그러나 한편으로 노력한 흔적... (text continues)

그러나 아직도 저들은 외대... (text continues)

통일운동에 새로운 지평을



언행합니까? 이렇게 저런... (text continues)

우여러분의 애정 어린 고민을... (text continues)

시도하는 민자당의 장기집권... (text continues)

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 (text continues)

그누가 우리의 힘찬 진군을 막을 것인가?

튼튼한 여학생부 건설할 터



부담이 크고 어려움 지면... (text continues)

진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여성... (text continues)

다양한 실패와 경험들 통해... (text continues)

이문호학생회장 김기석... (text continues)

단대 여학생회 강화에 주력



부평의 내용은 각계각층에 행... (text continues)

그대서 철문처럼, 여학생... (text continues)

2학기부터 새롭고 다양한... (text continues)

한상충학생회장 조영미... (text continues)

공 고

병 무 안 내

재학생 입에 관한 안내

재학생 연가제 휴학제 퇴학제 등... (text continues)

대학생을 위한 병역특례제도 안내

○병역특례 제도개설... (text continues)

유사제도 병·제대(9종·3종)

개설전제도	개설후 제도	선발대상
한글학회	연구요원	병역특례 집외회
자연계 연구요원	특례보충역	원외가 선정된 연구자
특수전문요원	기동요원	병역특례 집외회
학술특기자	특례보충역	원외가 선정된 학위 취득자
기간 징집제	기동요원	병역특례 집외회
종사자	특례보충역	원외가 선정된

방위선업체 종사자	기간 및 방위선업체 종사자로서 기술자격소지자
기능 특기자	국제역 수종의 기능보유자로서 위원회가 인정한 자
해군특례 예비역	의사, 치과 의사로서 공중보충요원 종사자
공중보충요원(예비역)	특례보충역

폐지되는 제도(6종)

자연계 교원요원	교대출신 예비역
농촌지도자 공무원	해경 항정 승선자
예능 특기자	제병 특기자

통·태합에 따른 경과 규정

한글학회 회원 학생, 해방 후 수년에 대학생... (text continues)

특례제도의 복무형태

전일 군사교육 실시후 해당분야에서 5년간 복무... (text continues)

학생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 여러분에게!

학자금대출은 학생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text continues)

구분	상환기간	상환방법
단기학자금	1년 이내	○월별 상환 납입기간에 대출원금의 10%씩 납입 ○연말 상환 납입기간에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액 납입
장기학자금	85.8.1 이전 대출자	원금: 기지기간(제외기간)경과후 3년 이내 이자: 기지기간중에는 연평균 4%의 이자, 기지기간중에는 연평균 3%의 이자
	85.8.1 이후 대출자	원금: 기지기간(제외기간)경과후 5년 이내 이자: 기지기간중에는 연평균 4%의 이자, 기지기간중에는 연평균 3%의 이자
유치학자금	85.8.1 이후 대출자	원금: 기지기간(제외기간)경과후 5년 이내 이자: 기지기간중에는 연평균 4%의 이자, 기지기간중에는 연평균 3%의 이자
	85.8.1 이후 대출자	원금: 기지기간(제외기간)경과후 5년 이내 이자: 기지기간중에는 연평균 4%의 이자, 기지기간중에는 연평균 3%의 이자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지 않으면... (text continues)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신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경정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 (text continues)



